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허락하신 광복 50주년의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다. 1945년에 한민족에게 주어진 광복은 일제로부터의 탄압을 받던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이기도 해서 이 날은 교회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총체적인 부패를 반영하는 대형사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로 계속 되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교계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도들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참사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숙과 절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민족 전체가 받아야 할 재앙으로 알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그치고 성도 개개인이 말씀으로 새로와져서 준법정신을 철저히 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일찍이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땅대가 무너져 열 여덟 명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원인을 죄 문제에서 찾으셨다(눅13:4, 5). 죄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전심으로 구하던 모세, 다니엘, 히스기야 왕의 예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자신의 생명과 바꾸더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구했던 사도바울의 간구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와 "오늘의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



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욘2:13)

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눈물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주간

### 고등부, 대학부 수련회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고등부와 대학부가 각각 수련회를 갖는다.

고등부는 김용진 전도사를 강사로 7일(월)부터 2박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말씀과 수련을 통해 신행일치의 삶을 훈련하게 된다. 대학부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3박 4일간 수련회를 갖는다. 영월의 완택산 기도원에서 진행될 대학부 수련회의 강사는 원 호 목사이다.

지난 달에 시작한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는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 장학생 선발

### 13일 (다음 주일)신청 마감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95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교구장이나 해당부서 지도 교역자의 추천서와 지난 학기 성적표를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오는 13일(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학습·세례식

8월 학습·세례식을 23일(수) I, II부 예배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1일(월) 오후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 \* 8월의 교회행사 \*

- 고등부 수련회 / 7일(월) - 9일(수), 가나안 농군학교
- 대학부 수련회 / 8일(화) - 11일(금), 완택산 기도원
- 청년부 수련회 / 13일(주일) - 16일(수), 강화도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 연장교육 / 7월 31일(월) - 8월 11일(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이종윤 목사 귀국 / 18일(금)
- 학습·세례식 / 23일(수)
- 새가족환영회 / 27일(주일)



■지상강단

- 해방 50년,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바라면서 -

# 民族 同質性 回復을 위하여(1)

이 중 윤 목사

우리는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말해야 되는 아리송한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민족 동질성에서만 찾는다면 이 또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논리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통일의 바탕이지 그것이 통일의 지상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보다는 통일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해야 통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히 동족이니까 뭉쳐야 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다분히 감상적인 것이며 또다른 편협한 국수주의적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 어서 오라”는 노래가 온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으면서도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반드시 와야 하느냐에 대하여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물질주의적 사고로 물들여진 젊은이들은 통일이 되었다 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국가란 공동체의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향해 윤리나 도덕의 자대(尺)를 갖고 운운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민족이라는 공동체보다 더 중요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종족이 다르면서도 국가를 형성해 가는 나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족동질성에 통일의 기반을 두려는 것은 같은 영토 내에서 생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념이나 경제공동체의 차원 보다는 민족 동질성의 차원에서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세기 후반기는 다분히 탈이념 탈냉전시대로 변하고 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라는 총체적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부터 이념전쟁은 이미 막을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변혁이 아니고 생존의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오늘의 세계질서는 군사적 차원보다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지배 질서가 대영제국 중심의 대서양 시대로 그 축이 이동되기까지 세계질서는

경제력보다는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제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세워져 가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전에서 비겼고 월남전에서는 패했으나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의 팽목할만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새로운 태평양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조되고 경제적 영향력이 눈부시게 급부상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에는 아직까지도 냉전의 찌꺼기가 남아 남북이 대치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까지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남북의 이념간의 갈등은 민족공동체 의식까지 파괴시켰으며 민족사회를 불안케 하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뇌관과 같이 세계의 문제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누가 우리를 둘로 갈라놓았는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조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과 분쟁 속에서 오로지 희생양 노릇을 했다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조국 분단의 원인을 외세에만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겠으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음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조국 분단의 일차적 원인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결과임을 겸허하게 고백해야 한다. 2차 대전 직후 독일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우리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며 눈물의 고백서를 내었던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 우리 죄를 참회함이 없이는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된 다 해도 거기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북이 갈라선 채 적개심을 갖고 불신과 시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

해방 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 이승만 정부를 통해 투철한 반공사상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우리 민족전체가 유물론사상에 흡수되는 일을 막게 하셨다. 6.25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북진통일, 무력 통일이라는 다소 무리한 주장도 있었지만 하나

남은 무신론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 4.19 학생혁명 이후 남한은 북진통일 또는 승공통일론과 함께 일부 진보세력에서는 평화통일 또는 중립화통일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제안하여 또한번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5.16이후 군사정권이 내세운 『선선설 후통일』의 새로운 정책제시는 가난했던 이 민족에게 통일 이전에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UN 감시 하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주장하면서 직접 교섭은 일체 거부했다.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남조선 혁명론이 노골적으로 선언되었지만 경제적 부를 축적하지 않고는 이념만으로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거니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1972년 7월 4일 소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평화통일, 민주적 통일 그리고 자주적 통일 원칙이 제시됨으로 남북체제를 공존시키면서 일단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은 경제성장을 위한 시간별기작 전이라기엔 너무 거창한 것이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공동성명 제 3항은 지금까지 반공을 외치던 반공기독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그후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이 전두환씨의 국경연설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것은 민족자결에 의한 민족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7.4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평화 민족자결 민주 원칙이 다 포함되어 있다. 노태우정권이 추진했던 북방정책은 통일분위기 조성에 또하나의 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통일로 가는 길의 한 구간씩을 맡기시고 지금까지 무엇인가 이루고 계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 ◆ 순례자 컬럼 ◆

#### 군중정책 시정을 촉구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원 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순 논리에 한국교회는 백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최근 국방부 군중장교 증원 계획에 의하면 불교에 80명을, 천주교에 20명을 각각 배정하고 기독교에는 증원이 없었다. 기독교측의 항의에 못이겨 10명을 약속했다고 한다. 종교 신앙이란 본래 타협이나 민주적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상식없는 지도자들에 의해 한국군 부대 내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종교가 서로 대결이라도 하듯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아닌 종교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소시민적 이기심이나 군국제도의 득권을 논하지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의를 위해서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으며 그 시정을 촉구한다.



#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지난 주간, 50여명 전도대원들이 천안의 용정리로 파송받아 전도활동을 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한 사도 바울처럼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라고 고백한 이들이 전도의 특권과 결실의 기쁨과 앓은 양을 찾은 감격을 누리며 나흘간 맘을 흘렸다. 여기 전도대원들의 분과별 활동의 내용과 신앙의 고백을 들어본다.

## 여름성경학교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예수님”이라는 금년 주제에 따라 말씀 공부와 특별활동을 하였다. 그림같은 용정국민학교 교정 한 가운데 느티나무 아래서 공동체 훈련, 각종 게임 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었다. <천로역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영원함을 가르쳐 주었다. <미니올림픽>을 통해서 협동과 봉사의 자세,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정신 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듯했다.

여름성경학교를 참석하면서 마음 문이 열린 아이들의 초청으로 각 가정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아이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도 복음을 뿌릴 수 있었다.



기쁨으로 밤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였다. 전문가이신 집사님들의 배려로 세무 상담과 법률 상담을 시도했었고, 김 권사님의 미용솜씨는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 축호전도

노촌전도에 있어 가장 중꺾범을 둔 축호전도 하루 다섯 시간의 강행군으로 가가호호 빠짐없이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세례까지 받았으나 결혼 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한 여성도는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근심하던 중이었는데 전도팀을 만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온 교회 회중들 앞에 나와 새로운 결심을 알리기도 하였다. <글 없는 책>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복음을 받아 들이는 이들도 많았다. 교회에 한번도 나와 보지 못했다는 아저씨는 술까지 취해서 어떻게 교회를 가나시며 강력하게 거절하셨지만, 전도팀의 강권에는 이기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기도 하였다. 할아버지가 장로요,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눈 앞에서 총살당하는 아버지를 본 후에 신앙을 버린 한 아저씨는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으나 결국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전도대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중에 그분의 섹스폰 연주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들을 수 있었다. 저녁 부흥회에 참석한 그 분 왈, “이 교회 부흥하겠구만요”

본드를 마시며 떠드는 이, 예수쟁이의 말 듣기 싫다며 무례하게 욕설을 퍼붓던 이, 칠월 칠석이라 불공드리고 온다는 이들도 모두 전도팀과 마주치면 끝내는 복음 내용을 들어야 했다. 다섯번 거절 하던 집도 여섯 번째 찾아가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며 결국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일... 우리는 이 모든 힘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싶다.

## 의료전도

‘포인트’ 라는 치료방법이 주민들에게 인기였다. 찾아오는 주민들을 붙잡고 치료의 주님께 기도한 후 정성껏 진료하는 도중에 그들의 마음받은 복음을 뿌리기에 좋은 토양으로 기경되었다.

무릎을 펴지 못하던 한 환자가 치료받은 후 힘을 얻어 일어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있었다.

## 지역봉사

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정자 나무 청소부터 시작했다. 전도팀의 땀 흘리는 봉사에 송구해 하며 저녁 부흥회 참석을 약속했다. 전도팀은 짧은 일정동안이지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가지 전략을 수립했었다. 첫날에는 일단, 예배당에 발을 내딛게 하는 것으로 그로써 일차적인 전략은 성공한 것이었다.

용정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헌신을 하신 조용환 장로님 맥은 전도대가 머무는 동안 내내 전도본부이자 동네잔치를 위한 연회장이었다. 소찬이나마 동네주민들과 날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에 벽돌을 쌓을 만큼 신앙이 좋았으나 그만 시험에 들어 교회를 멀리하던 성도가 다시 교회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일, 불교에 열심이어서 절대 안될 것이라던 사람이 삼일을 내내 부흥회에 참석한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환 장로님께서는 용정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보기는 처음이라시며 감격하셨고, 그



불을 때서 밥을 해주시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양 집사님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여 집사님들, 찬양팀의 영감어린 찬양, 온 교회의 기도의 지원 등이 아름답게 어울어졌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우리가 있는 동안 다소 활기를 찾게 된 용정교회와 용정리 모습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며 우리가 뿌린 씨앗이 결실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 프라하에서 온 편지 ✉

- 고 김재원 집사를 추모하면서 -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서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7월 31일) 14시간이 비행을 하여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후 예정대로 학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라성같은 학자들 약 350명이 참여한 세계신약학회(SNTS)는 학회 창설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구라파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 자신으로는 이곳에 세번째 방문을 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천년이 넘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공산주의도 잘라내지 못했다고 하는 산 증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하던 날 새벽, 사랑하는 김재원 집사님의 발인예배를 집전한 일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7월 29일 낮 12시 50분 즈음으로 기억됩니다. 숨막히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최순애 권사님의 긴급 기도요청 소리에 저는 벅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강남구 수서동 김재원 집사님 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몇년째 기도도 못하신 김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이 둘러앉았고 최 권사님은 방 안을 깨끗이 정돈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가 왔다는 권사님의 전언을 들으셨는지 눈꺼풀을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제 손을 그이 머리 위에 얹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 무렵 김 집사님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데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 손 붙잡으시고 천국 가세요" 외치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아멘" 했을 때 이미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의 눈꺼풀을 덮고 턱을 고이고 나자 권사님은 남편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슬피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이 어디있느냐" 시며 감사의 눈물을 닦으신 후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꺼내어 제게 주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달 전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때에도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간 제게 손수건에 꼭꼭 싸인 헌금을 건네시며 서울교회 예배당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하실 때, 과부의 엽전 두 뿔돈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신은 구호대상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형편에서 약값이라도 보태라고 문병은 성도들이 두고 간 위로금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모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헌금 벽돌되어 서울교회 예배당 짓고 김 집사님, 최 권사님 간절히 소원하시는데로 복음의 나팔소리 크게 울려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라고 모인 모두가 함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피도 식지 않은 시신 앞에서 권사님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행동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 고 김재원 집사님은 천국에 보화를 쌓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받은 바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은 이곳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입니다. 시간차로 인해 잠을 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강연과 설교 등 할 일이 무거워 잠을 설치어 새벽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운 여러분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자꾸만 떠오르고, 김재원 집사님의 천국가시던 모습이 아련히 보여 멀리서나마 새벽에 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 한주간도 은혜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전체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불비례합니다.

1995년 8월 3일

주 안에서

주님의 작은 종이 종 윤 목사 드림

현대의 특징은 개인주의이고, 나 하나 위주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게 되자, 그 반대는 절대 불가이다. 유년시절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일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구도 적이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아주는 집단주의는 꿈 속의 동화이다.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을 가도 개인 집착은 변동이 없고 입사시험에 자기를 묶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의 존재는 오히려 타인보다 밉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멍쳐야 하고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집을 완성하여야가듯 앞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청년부가 주관하는 여름 수련회에는 끝내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없다. 별다른 프로그램으로 유혹하지도 못한다. 항상 있는대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 친교가 이어진

■청년부 수련회에 붙여  
“한 이불 덮기 운동”  
김 광 신  
(장로, 청년부 부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어이 수련회를 가야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한 이불 안에 여럿이 들어가서 엉키고 설키면서 비비고 뼈저덕 거리면서 스킨십(skinship)을 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가 되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땀 냄새 속에서 인간성 파악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몸의 강약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 결점의 부족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충 받을 수 있고 내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을 살리기 위해 금년만이라도 나를 버리고 같이 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결심을 수련회를 통해 다짐해보자. 첫 사랑의 꿀맛도 싫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나의 어울림을 이어가는 것도 아이스크림의 시원함 그 이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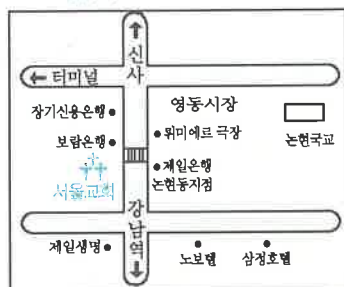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여름행사를 통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되도록